<창초경제 비전과 실행 전략>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

㈜대덕넷 대표이사 이석봉

1. 창조와 대덕연구소의 연계는 중요한 것이다. 현장과의 대화가 바람직하며 박대통령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현장을 중시하겠다는 의지는 바람직하지만 과천과 연구단지라는 공간이 갖는 제한을 벗어날 발상의 전환, 소통을 위하여 대덕과 공간적인 공유가 필요하지 않는가?

2. 과학자는 자판기가 아니다. 연구예산을 넣으면 결과가 나온다는 생각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상호간에 교류와 교육이 촉진되어야 할 것인데 출입증 문제나 출연연 협력 TFT, 출연연의 문화를 만들자. 유한 킴벌리는 밖에서 음식을 먹지 말자고 한다. 밥의 질을 유지하고 이웃 연구소의 연구원을 초청하여 교류하도록 하자. 모두 모여야 교류가 되고 장인순 소장이 중심이 된 '따뜻한 과학기술을 위한 벽돌 한장"은 지역사회에 기여할 것이다. 업무가 끝나면 갈 곳이 없고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공간이 없다. 미래부에서 해결하면 좋겠다.

3. 올해 연구단지 40주년이다. 이제 반세기 연구단지라는 장기적인 모습을 그려보며 대덕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한국의 성장엔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연구단지에 엔진이 필요하고 대장이 필요하다. 연구단지는 개별적으로 잘하고는 있지만 같이 잘하는 행정이 필요하다. TLO가 100명이 넘고 외국인이 벤치마킹 하러 오는데 전체적인 스케쥴이나 교두보가 필요하다.

4. 엑스포의 공학공원에 대하여 미래부의 입장은 무엇이나?